

성당 견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성당 견학 매너

성당은 '기도하는 장소'이므로 견학 매너를 지키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게 관람해 주십시오.



성당 견학 사전 연락

성당 행사에 따라 견학할 수 없는 경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견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각 접수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단, 오우라 천주당 견학은 사전에 연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 인포메이션 센터가 접수창구인 성당

사키쓰 성당, 구 고린 성당, 시쓰 성당, 오노 성당, 구로시마 천주당, 다비라 천주당, 에가미 천주당, 가시라가시마 천주당

오지카 아일랜드 투어리즘이 접수창구인 성당

구 노쿠비 성당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 인포메이션센터

(우)850-0862 長崎市出島町1-1-205

나가사키시 데지마마치 1-1-205(데지마 워프 2층)

TEL. +81-95-823-7650 ©접수시간| 9:30~17:30

<http://kyoukaigun.jp/kr/>

오지카 아일랜드 투어리즘

(우)857-4701 北松浦郡小値賀町笛吹郷2791-13

기타마쓰우라군 오지카쵸 후에후키고 2791-13(오지카항 터미널 내)

TEL. +81-959-56-2646 ©접수시간| 9:00~18:00

<http://ojikajima.jp>(일본어 사이트)

제작/나가사키현 세계유산등록추진과

이메일| s38020@pref.nagasaki.lg.jp

URL| http://www.pref.nagasaki.jp/s_isan(영어 사이트)

2018년 2월 발행

촬영 협력/현 미구리시 유이치, ① 이케다 쓰토무

<http://kirishitan.jp>

2017년 여름경에 전문기관의 현지조사를 거쳐
2018년 여름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ndidate
for
World
Heritage
from
Nagasaki

세계문화유산 후보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사세보시
히라도시
고토시
미나미시마바라시
오지카쵸
신카미고토쵸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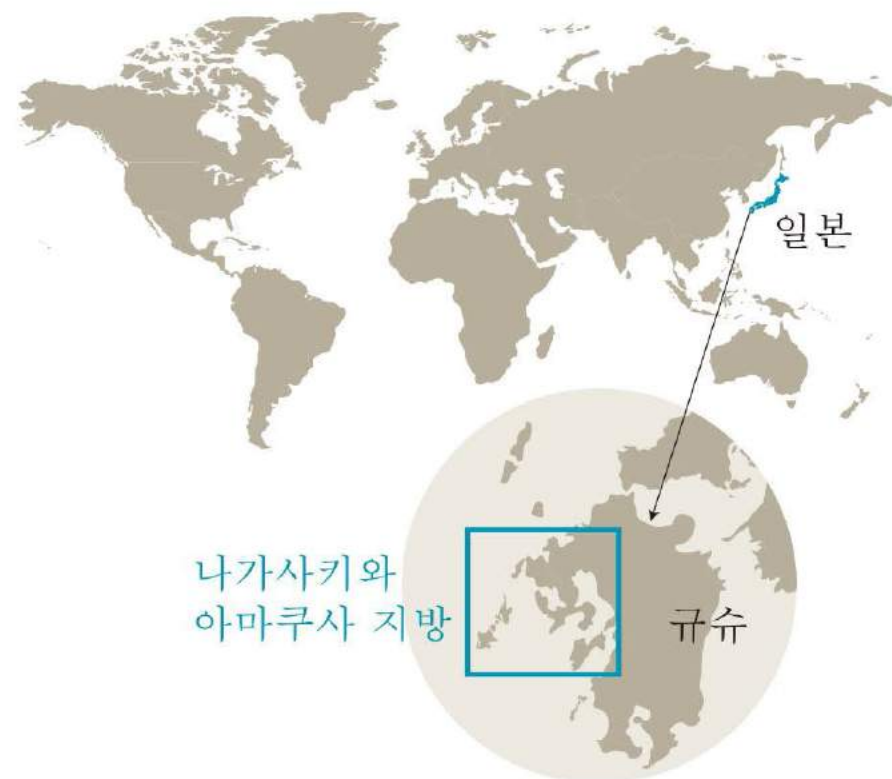
일본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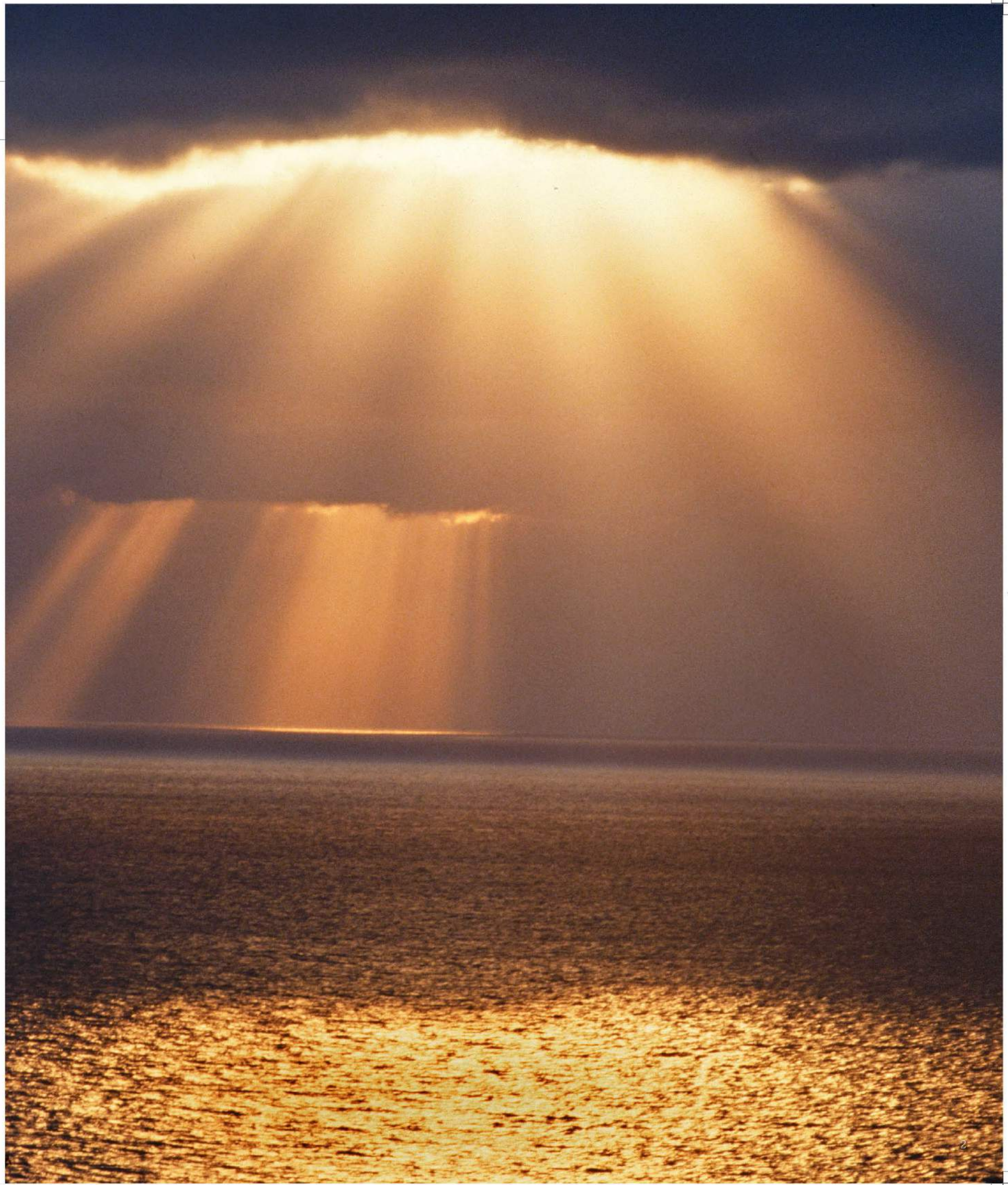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소개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계 기독교 선교지의 동쪽 끝에 있는 일본. 그 일본 열도의 남서부, 규슈 서쪽 끝에 위치한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은 고대로부터 일본과 대륙의 가교 역할을 해 왔으며, 16세기 후반부터는 가장 집중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 결과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들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선교사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견고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기독교가 금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전통적 종교나 일반 사회와 공생하면서 은밀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는 독특한 방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19세기 후반의 해금 후 가톨릭으로 복귀한 신도들에 의해 교회당이 건설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지금도 이 지방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예외적으로 많은 가톨릭 신자와 교회당이 존재하고 있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은 2세기 이상에 걸친 기독교 금교 정책 아래에서 은밀하게 신앙을 전파한 사람들의 역사를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이다.



소토메의 저녁 경치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형성된 일본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은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의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에서 일본의 전통적 종교나 일반 사회와 공생하면서 신앙을 지켜 온 잠복 크리스천의 신앙 유지와 관련된 전통을 증명하는 유산군이다. 그 유산군은 잠복 크리스천 전통의 시작에서부터 형성, 유지, 확대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신앙 국면의 도래에 따라 전통이 변용되어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잠복 크리스천의 전통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12가지 구성자산으로 되어 있다. 그 유산군은 대항해 시대의 아시아에서 기독교 선교지의 동쪽 끝에 있는 일본 열도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반도와 낙도에 점재해 있다.

‘잠복 크리스천’이란?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었던 17~19세기 일본에서 은밀하게 기독교에서 유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잠복 크리스천’이라 부른다. 아울러 금교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당시 일본에서는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키리시탄’이라 불렀다. 또한 기독교가 해금된 19세기 후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잠복 크리스천의 신앙 형태를 유지한 사람들을 ‘가쿠레 키리시탄’이라 부른다.



12가지 구성자산

											
하라 성터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가스가 취락과 야스만다케 산) (나카에노시마 섬)	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	소토메의 시쓰 취락	소토메의 오노 취락	구로시마 섬의 취락	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	가시라가시마 섬의 취락	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나루시마 섬의 에가미 취락 (에가미 천주당과 그 주변)	오우라 천주당	
채국 체제의 확립으로 이어져 잠복 크리스천이 독자적인 형태로 신앙을 유지하는 계기가 된 장소.	산악이나 섬을 성지와 순교지로 숭상하면서 은밀하게 신앙을 유지한 취락.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신앙의 도구로 대용하여 이른 특유의 형태로 신앙을 유지한 취락.	성화상을 은밀하게 숭배하고, 교리서와 교회력 등을 전승하면서 신앙을 유지한 취락.	신도(일본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를 가장하여 신사에 자신들의 숭배 대상을 은밀히 모시면서 신앙을 유지한 취락.	히라도 반의 목장 터를 지개만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불교사원에서 마리아 관음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신앙을 유지한 취락.	신도의 성지였던 섬으로 이주하여 가파른 경사지를 개척하면서 신앙을 유지한 취락.	환자 요양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섬에 불교도 개척 지도자 밀로 이주하여 신앙을 유지한 취락.	고토 반의 정복에 따라 섬의 미개척 지역으로 이주하여 불교 취락의 섬 주민들과 상부상조 관계를 맺어 신앙을 유지한 취락.	섬의 외진 곳에 위치한 바닷가 골짜기로 이주하여 해금 후 지형조건에 맞추어 교회당을 건설한 취락.	2세기 만에 잠복 크리스천과 선교사가 만나 새로운 신앙의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된 장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 관련
하라 성터 흔마루(구성자산 ①)
'시마바라 전투 그림 병풍',
아키즈키 향토관 소장

세계유산 으로서 가치

현저한 보편적 가치

I | 신앙 지속과 관련된 전통의 시작

1549년 예수회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 의해 전해진 일본의 기독교는 그 후 일본에 온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과 남만 무역의 이익을 위해 개종한 크리스천 다이묘에게 옹호되어 일본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한 선교사 추방령에 이어 에도 막부의 금교령에 따라 교회당은 파괴되었고 선교사는 국외로 추방되었다. 1637년 금교 정책이 강화되던 중 압정에 항의하는 크리스천들이 '하라 성터'에서 농성을 벌인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에 충격을 받은 막부는 선교사의 잠입 가능성이 있는 포르투갈 선박을 추방하고 쇄국 체제를 확립했다. 1644년에는 마지막 선교사가 순교. 남은 크리스천은 민중 차원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은밀히 신앙을 유지했으나, 17세기 후반에 일어난 대규모 크리스천 적발 사건에 따라 공동체는 차례차례 붕괴되었고, 신도의 대부분이 종교를 포기하거나 순교했다.



신앙의 도구로 대용된 일본겨울(구성자산 ④)

II | 신앙 지속과 관련된 전통 형성의 단계

일본 각지의 잠복 크리스천은 그 맥이 끊어졌지만 기독교 전래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에서는 18세기 이후에도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점차 일본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신앙을 숨기면서 유지하기 위해 산이나 섬 등을 성지와 순교지로서 섬긴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생활과 생업에 뿌리내린 친숙한 사물들을 신앙의 도구로 대용한 '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 성화상을 은밀하게 섬기며 교리서와 교회력을 믿음의 기초로 삼은 '소토메의 시쓰 취락', 신사와 자신들의 신앙 대상을 합친 '소토메의 오노 취락' 등 다양한 신앙 형태가 각각의 취락에서 형성되었다.

은밀하게 전승한 '무원죄 플래킷'
(구성자산 ⑤, 나가사키시 드로신부 기념관 소장)



가스가 취락과 야스만다케 산,
나가에노시마 섬(구성자산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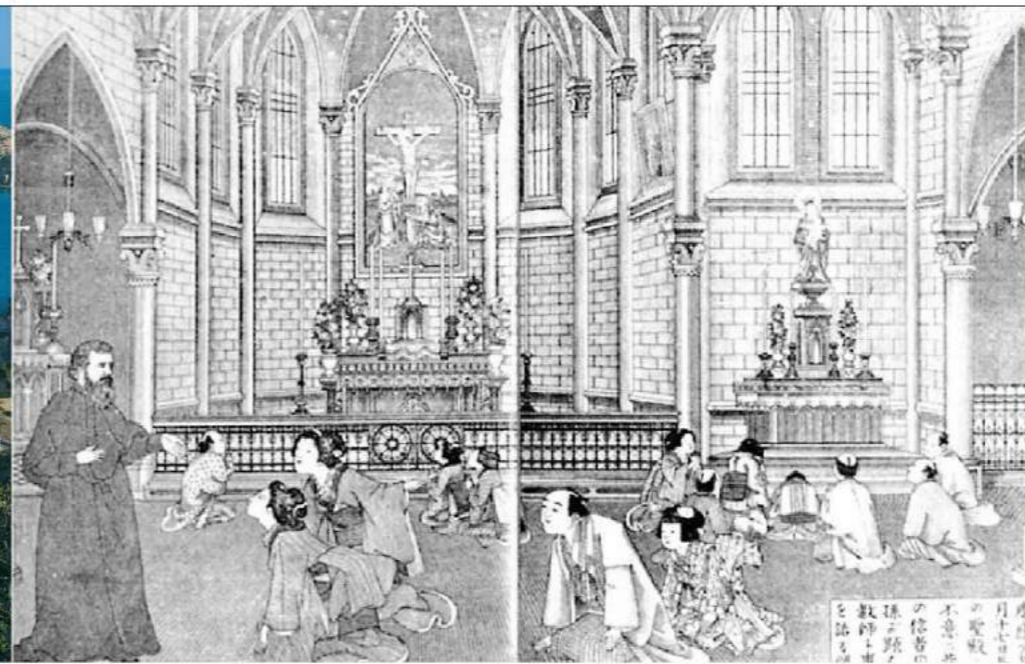
일본 교유의 신앙 '신도'의
신지가 되어 신앙을 가장한
'오노 신사'(구성자산 ⑥)



오키노코지마 신사(구성자산 ⑨)



시라하마 취락(구성자산 ⑩)



‘신도 발견’을 그린 삽화
(에메 빌리용 저 『일본성인 선혈유서』)



창건 당시의 오우라 천주당(구성자산 ⑪)
※(주)나가사키 문헌사 제공

III | 신앙 지속과 관련된 전통의 전략적인 유지/확대 단계

18세기 말이 되면서 소토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해 고도 열도 등으로의 개척 이주가 실시되었다. 개척 이주자 중에는 잠복 크리스천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이 이주할 때는 번의 재개발지(구로시마 섬의 취락) 및 미개발지(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신도(일본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의 성지(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 환자 요양지(가시라가시마 섬의 취락) 등 기존의 사회 및 종교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이주지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신앙 대상이나 이주할 곳을 고르는 과정에서 더 돈독해진 신앙의 형태로 인해 2세기에 걸쳐 잠복 크리스천의 신앙이 계승되었다.



낙도 등으로의 이주

오비라키 취락(구성자산 ⑫)



와라베 취락(구성자산 ⑬)



IV |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신앙 지속과 관련된 전통이 변용되어 최후를 맞이한 단계

1854년의 개국 후 머지않아 나가사키에 온 선교사들은 ‘오우라 천주당’을 건설하여 거주지 서양인을 위한 선교활동을 벌였다. 1865년 오우라 천주당 선교사와 우라카미 마을의 잠복 크리스천이 만난 ‘신도 발견’을 계기로 많은 신도들이 신앙을 표명하자 다시 탄압이 강화되고 적발 사건이 잇따랐다. 이윽고 탄압에 대한 서양 각국의 강한 항의가 잇따르자 1873년에 메이지 정부는 기독교의 금교령을 철폐하였다. 잠복 크리스천은 선교사의 지도하에 들어가 가톨릭으로 복귀하는 사람,

계속 금교 시기의 신앙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 신도나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으로 각각 갈라졌다. 가톨릭으로 복귀한 취락에서는 소박한 교회당이 새롭게 세워졌지만, 나루시마 섬의 에가미 취락에 세워진 에가미 천주당은 이주처의 풍토에 맞추어 설계된 전통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잠복 크리스천의 전통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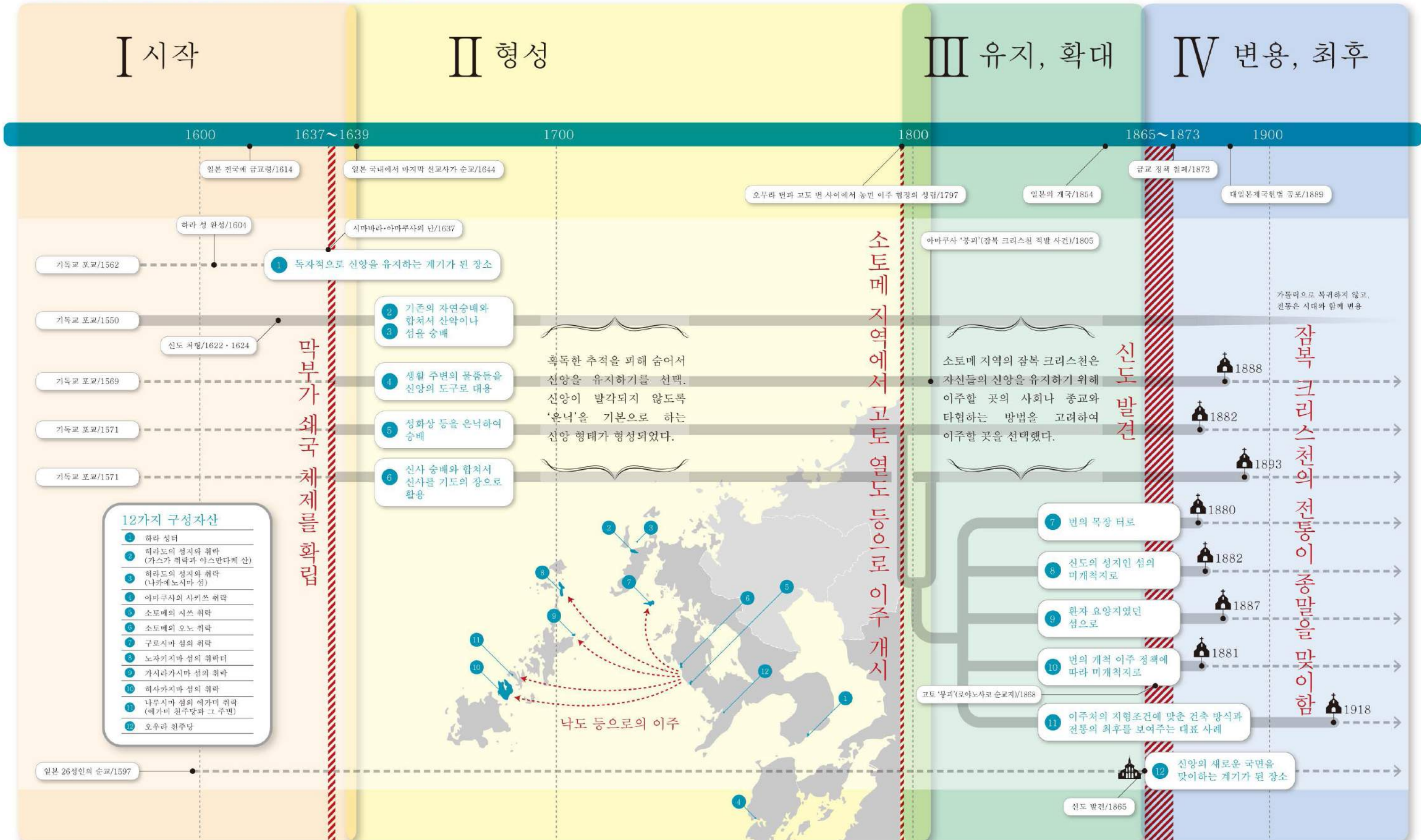
에가미 천주당(구성자산 ⑭)



구성자산의 역사적 의의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잠복 크리스천의 신앙 지속과 관련된 전통



12가지 구성자산의 소개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1

하라 성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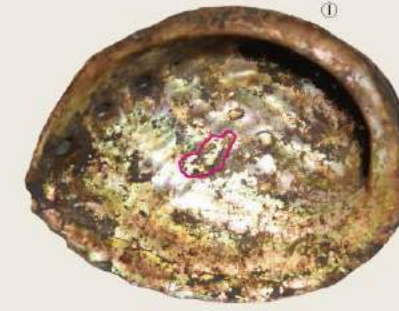


당시의 하라 성터 혼마루(<하라성 포위도>,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소장)

현재의 하라 성터 혼마루

4

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



신앙의 도구로 대용된 전복조개 (개인 소장)

* 붉은 테두리 부분을 성모 마리아로 여겼다



'에후미(잠복 크리스천을 적발하기 위한 의식)'가 시행된 사키쓰 관사 터에 서 있는 현재의 사키쓰 성당

2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가스가 취락과 야스만다케 산)



잠복 크리스천이 자연숭배와 합쳐서 숭배한 '야스만다케 산 정상에 있는 석조물군'

야스만다케 산을 숭배한 잠복 크리스천이 거주했던 '가스가 취락'

5

소토메의 시쓰 취락



은밀하게 모셔 온 <성 미카엘> (사본,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시쓰 취락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서 있는 '시쓰 성당'

3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

(나카에노시마 섬)



잠복 크리스천이 세례에 사용할 성수를 채취하는 의식 나카에노시마 섬의 '오미즈토리'

금교 시기 초기에 크리스천이 처형되어 순교지로서 잠복 크리스천이 숭배한 '나카에노시마 섬'

6

소토메의 오노 취락



크리스천의 혼을 모시는 '가도 신사'

오노 취락의 중심부에 세워진 '오노 성당'

12가지 구성자산의 소개

7

구로시마 섬의 취락



잠복 크리스천의 무덤이 있는 '시키리마키 묘지' ※일반적인 불교묘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잠복 크리스천의 무덤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초대 구로시마 천주당 터에 서 있는 현재의 구로시마 천주당

10

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에이리 취락의 마리아 관음 (도자키 천주당 크리스천 자료관 소장)



히사카지마 섬에 처음 세워진 이후에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워진 '구 고린 성당'

8

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



잠복 크리스천이 노자키지마 섬의 남쪽 끝으로 이주하여 만든 '후나모리 취락터'

조카타(잠복 크리스천의 지도자) 저택 터 옆에 서 있는 구 노쿠비 성당

11

나루시마 섬의 에가미 취락

(에가미 천주당과 그 주변)



습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루를 높이 올린 모습

깨끗한 샘물이 솟아오르고 방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세워진 '에가미 천주당'

9

가시라가시마 섬의 취락



개척 지도자인 마에다 가문의 무덤 ※사유지인 관계로 출입은 삼가 주십시오.

'가설 성당' 터에 서 있는 현재의 가시라가시마 천주당

12

오우라 천주당



'신도 발견'의 무대가 된 '오우라 천주당의 내부'

해금 후에 증축된 '오우라 천주당'